

7/20(화) 다니엘 묵상 42

다니엘 10:4-9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세이레(3주간) 동안 히데겔 강가에게 기도를 할 때 한 사람이 다니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앞에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 엎드린 채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로 돌아간 백성들의 안위와 예루살렘 성전의 중건을 위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21일간 중보기도를 했던 장소는 히데겔 강가입니다(4절,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 가에 있었는데”**). 히데겔(히브리어) 강은 티그리스(헬라어) 강을 의미합니다. 티그리스 강은 에덴동산 주위로 흐르던 네 개의 강들 중에 하나이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요한 두 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 왜 갔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당시 그 주변에는 다니엘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추정 건대 이는 다니엘이 고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를 위해 주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티그리스 강가로 가서 집중적인 기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시편 말씀에도 묘사되어 있습니다(시 137:1,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혹자는 다니엘이 대표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본국에서 겪었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당시 국가의 관직을 맡고 있었고 고령의 나이 에다가 또 다니엘 입장에서 자신은 페르시아에 남는 것이 여러가지 이유에서 도움이 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페르시아에 남아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한 사람

다니엘이 처음부터 세 이레를 정하고 기도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지면서 다니엘이 스스로 금식기도를 마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단 9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는 ‘일흔 이레의 기한’을 깨닫게 하시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단 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지만 이번 중보기도에서는 장차 이루어질 큰 전쟁에 관한 예언을 응답으로 보여주셨습니다(1절하,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 다니엘에게 나타난 한 사람은 그 형상이 매우 특이했습니다(5-6절, **“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학자들간의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로 성육신하기 전, 성자 예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5-6절에 묘사된 모습입니다. 이는 마치 요한계시록 1:13-16절에 묘사된 그리스도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계 1:13-16,

“춧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때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또, 다니엘이 한 사람을 보고 그의 말에 거의 죽은 자처럼 반응했던 것은 이전에 천사장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와는 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8-9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두번째로, 이름 모를 천사로 보는 견해입니다(Unidentified Flying Angel). 근거 구절로는 13절의 말씀입니다(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만약 그 ‘한사람’이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가 바사 왕국의 군주에게 21일 동안 갈 길이 막히고 또 천사 미가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본문 속, 창세기와 히브리서에 기록된 멜기세덱을 비롯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군대장관 등등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지성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되지만 무조건 의심하는 습관도 피하는 가운데 겸손히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생애 마지막에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그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고령의 나이에 불구하고 민족의 중대한 위기와 장래를 위해 삼 주간이나 강가에 가서 금식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을 보고 그의 말을 듣는 가운데 다니엘은 고령의 나이에 완전히 기진맥진해졌고 거의 죽은 자와 같이 방불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은 젊은 이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에도 보면 성령이 오시면 모든 남녀노소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욥 2: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과연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꿈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아실현과 자기 만족을 위한 삶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분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평생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남아공을 위한 기도:** 남아공이 폭동과 약탈로 인해 공권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들이 하루 속히 안정을 되찾도록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위원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오늘은 교육 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가나의 양광균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